

 고용노동부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2022. 1. 21.(금) 조간 *인터넷 2022. 1. 20.(목) 15:00 이후 / 총 11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과 장 박종일 사무관 임경희	044-202-8850 044-202-8852
	국토교통부 코로나19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과 장 이두희 사무관 강근하	044-201-4152 044-201-4158
	경찰청 교통안전과	과 장 양우철 경 정 최대근	02-3150-2052 02-3150-215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배달 문화,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정부와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0일(목) 15시,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기업

<협약체결식 개요 <붙임1>>

- ◆일시 및 장소: '22.1.20.(목) 15:00, 한국프레스센터
- ◆참석: <정부>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경찰청 교통국장 <기업>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 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메쉬코리아, 슈퍼히어로, 국민라이더스, 만나코퍼레이션, 인비스소프트, 비욤드아이앤씨 대표이사 등

-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와 배달플랫폼 업계 및 관계 부처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붙임2>

1.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 플랫폼을 통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2.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종사자의 사고 사례, 날씨·도로 상황 등 위험요인 대비 방법, 사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3.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및 공제조합 설립 과정 등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종사자 대상 배달 재촉, 음식 배달과 무관한 요구 및 특정 배달 방법 강요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5. 기타 종사자 지원

-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

-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사업장 점검과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종사자의 안전의식 미흡, 음식점·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을 업계와 함께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여러 기업이 자율적·자발적으로 종사자 안전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안전한 배달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붙임3>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임경희 사무관(☎044-202-885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일시) 1.20.(목), 15:00~15:35(35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참석)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경찰청 교통국장
및 12개 협약체결 업체* 대표이사 등
- *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스파이더
크래프트, 바로그, 로지올, 메쉬코리아, 슈퍼히어로, 이어드림, 만나
코퍼레이션, 인비즈소프트, 비온드아이앤씨

□ 세부 일정 (전체 공개)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2	체결식 개요 설명	산업안전보건정책관
15:02~15:05	장관 인사 말씀	고용노동부 장관
15:05~15:28	체결식 참여자 인사말	고용노동부 제외 참석자 전원
15:28~15:30	협약서 서명	-
15:30~15:35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

1. 목적

이 협약은 음식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륜차 등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체결한다.

2. 협약 이행

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체결기업’이라 한다.)과 정부는 종사자가 둘 이상의 음식 배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체결기업을 포함한 업체 전반의 상호 협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약을 이행한다.

다만, 협약의 내용 중 개별 체결기업에 법령상 의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법령상 의무 이상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이행 내용

체결기업과 정부는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며, 정부는 체결기업이 아닌

기업에도 이 협약에 따른 내용을 권장함으로써, 음식 배달 산업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종사자 안전보건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채결기업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플랫폼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

- ①플랫폼을 활용한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정보제공 기능
- ②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플랫폼 운영
- ③종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플랫폼 이용 중 휴식 기능
- ④종사자가 일 단위 플랫폼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⑤종사자가 업무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운영

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채결기업은 상시적·정기적으로 종사자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 등을 제공하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채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①종사자의 사고 사례
- ②종사자에게 적합한 개인 보호구 종류와 사용 방법
- ③이륜차의 안전한 운전 방법
- ④이륜차 점검 및 정비 방법
- ⑤날씨, 교통, 도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요인과 대비 방법
- ⑥휴대전화 거치대, 배달 장비 등의 올바른 장착 및 이용 방법
- ⑦질병, 피로, 음주 등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⑧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

- ⑨업무 중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 ⑩산업안전 및 도로교통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 ⑪운전 중 안전한 플랫폼 이용 및 조작 방법

다.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등

채결기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음식 배달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채결기업은 같은 법에 따라 종사자의 사업용 운송수단 사고로 생긴 손해 배상 등을 위해 설립되는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과정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정부는 음식 소비자와 음식점주 등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종사자에 대한 배달 재촉, 폭언, 음식배달과 무관한 요구, 특정한 배달 방법의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채결기업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종사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을 계속해서 교육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마. 기타 종사자 지원

채결기업과 정부는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개인 보호구 및 배달용품 구매, 이륜차 점검·정비, 고용·산재보험 및 유상 운송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 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

4. 제도 개선

정부는 채결기업이 협약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가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정부는 채결기업이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경우, 그 사항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 하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현행 제도가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채결기업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5. 협약의 유효 기간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유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채결기업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정부에 협약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그 만료일은 매 1년씩 연장된다.

6. 결어

채결기업과 정부는 협약의 충분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 김병우	우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김명규	플라이앤컴퍼니 대표 유재혁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이사 유현철	代 바로고 대표이사 이태원	로지올(생각대로) 대표이사 채현진
메쉬코리아 대표 최병준	슈퍼히어로 대표이사 김용식	代 이어드림 대표이사 임현철
代 만나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조양현	代 인비즈소프트 대표이사 배기훈	비온드아이앤씨 대표이사 윤종일
대한민국 정부	代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代 국토교통부 장관 노 형 욱
		경찰청 청장 김 창 통
2022. 1. 20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입니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 안전 협약 체결식에
참여해주신 기업 CEO분들과
관계 부처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협약 추진 배경>

요즘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배달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계속되며,
음식 배달시장은 매년 크게 성장해 왔고,
종사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 음식 서비스 거래액: '17년 2.7조원 → '18년 5.3조원 → '19년 9.7조원 → '20년 17.3조원 → '21.1~11월(잠정) 23.2조원

그러나,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종사자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 퀵서비스 업종 사고사망자(기인물 이륜차): '16년 7명 → '17년 2명 → '18년 7명 → '19년 7명 → '20년 17명 → '21년 18명

지난해 정부가 사업장 점검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종사자의 안전의식 미비,
음식점이나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약의 의의>

배달산업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
배달종사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배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업체와 정부가 함께
안전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에서
협약내용 작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심으로써,

배달산업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기업 간의 협력은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맺음말>

과거에도 정부와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해
협력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 '17.4월 고용부, 경찰청 및 햄버거·피자·치킨 프랜차이즈 8개社の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결의

오늘 협약은 배달플랫폼 기업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종사자의 사고,
특히, 우리 청년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 '16년~'21년 연령대별 퀵서비스 업종 사고사망자(기인물 이륜차):
20대 이하 27명, 30대 13명, 40대 7명, 50대 7명, 60대 이상 4명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더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안전 배달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